

인터뷰

금년 미국 곡물 대풍작으로 기록적 수확예상

— 금년 12월에는 이례적인 옥수수가격 상승세 —

미국사료곡물협회 STOLTE 회장

양계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계란과 닭고기 판매 가격인데 이에 못지 않게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 사료가격이다.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가격 안정이 축산업 안정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74년 제 1차 석유 파동때 우리가 직접 몸소 겪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정부도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료안정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은 9월호 안테나에 소개한 바와 같다.

옥수수 값은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옥수수 가격이다. 지

난 10월 11일 우리의 주요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의 농무장관 일행의 방한이 있었고 이 일행으로 내한한 미국사료 곡물 협회(U. S. Feed Grains Council) 워싱턴 본부의 다아윈·이·스톨티(DO ARWIN E. STOLTE) 회장을 찾아 앞으로의 옥수수 가격 전망을 들어 보았다. 통역과 보조 설명은 한국지부의 박영인 부장이 수고하여 주었다.

스톨티 회장의 개황설명

지난 1년간 세계의 곡물 사정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구매하여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축복받은 한해이었습니다. 밀은 대풍으로 7천

5백만톤을 생산했고 사료곡물도 20%나 증수되어 2억 4천 5백만톤을 생산했으며, 대두도 7천만톤을, 면화는 1천 5백만작을 생산하여 고루 모든 품목이 기록적 생산을 하였습니다. 미농무성(USDA) 집계에 의하면 세계 총 생산량이 16억 2천 2백만톤 생산으로 과년도 재고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급면에서 대단히 좋은 전망입니다.

사료곡물의 공급잉여분 1억톤 상당예상

이렇게 생산이 기록적인 반면, 사료곡물의 경우 미국내의 수요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미국내의 고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품의 수요가 감퇴되고 축산물 수요도 따라서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풍작에 이월분까지 기록적으로 사료곡물의 공급잉여분은 1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사료곡물의 가격 하락과 생산 농민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옥수수 수확기에 농가수취 가격이 톤당 80\$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생산비가 톤당 100\$ 선이니 농가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 선물시장의 옥수수 가격이 부셸당 2\$ 80¢ 인데 현재 시세는 2\$ 입니다. 12월에 상승세로 나타난 것은 쏘련기 곡물구매를 고려한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쏘련의 국제 곡물시장 개입도에 따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미소간에는 곡물구매 5개년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81년까지) 그 주요 내용은 쏘련이 연 6백에서 8백만톤을 수입하고 그 이상을 수입할 경우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수량은 못박지 않고 있습니다.

쏘련의 구입량에 따라 가격변화

그런데 80년도에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정부는 쏘련에 대한 곡물금수조치(선적 지연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레이건 정부가 다시 원상복귀 시켰고 3개월 전에는 5개년 계약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3일의 미소 협의회에서 2천 3백만톤까지 소맥과 사료곡물과 대두를 수입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현재 8백만톤을 이미 구매하였고 천만톤은 내년 3월

까지 선적할 것이며 나머지 5백만톤은 내년 3월후에 남미의 작황을 보아 선적기일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월의 선물시장 가격이 2\$ 80¢ 인데 3\$ 이나 3\$ 50¢ (부셸당) 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정책도 가격인상의 복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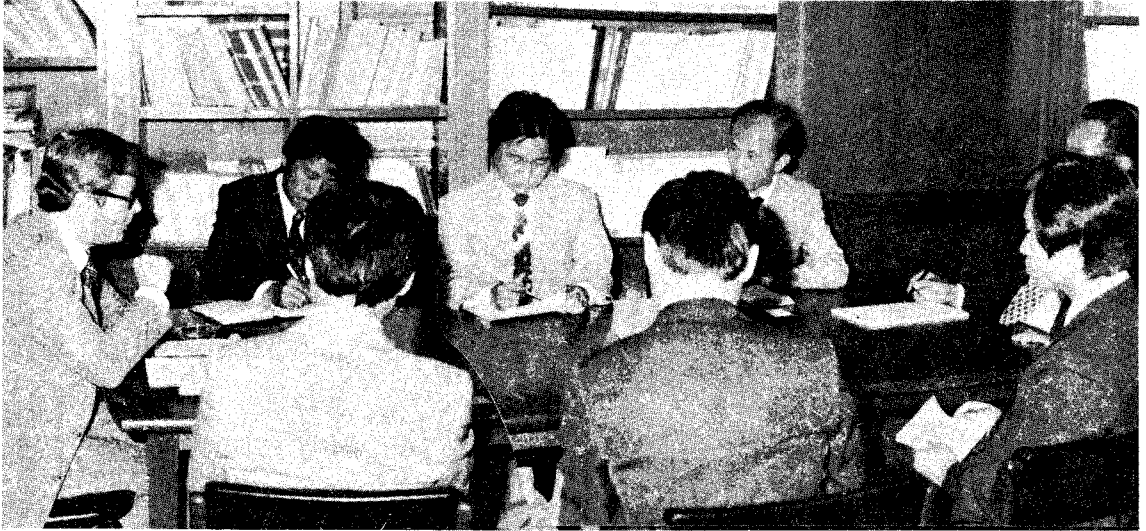
가격인상 요인의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정책입니다. 고금리에 따라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이 그만큼 불리하여져서 현재 금리인하 정책을 심의 중에 있는데 현재의 연 19% 수준에서 12%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금리에 따라 각 나라 환율이 직접 영향을 받고 교역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미국국회에서 농업정책을 심의 중인데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새 농업정책에 따라 농민감소로 가격 인상될 수도

82년부터 86년까지의 4개년간 중기 농업정책이 마련됩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예산삭감 정책은 농산물의 가격지지 예산도 상당액 삭감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농업은 자유시장 체제로 되어 농민들은 생산을 합리적으로 해야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미국내 시장이 확대 안되면 해외시장 확대를 스스로 가격지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 후퇴로 농민의 숫자가 감소될 것이고 농가의 규모가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규모가 작고 경영을 잘못하는 농민이 줄어들어 미국 농업발전에는 오히려 다행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경영을 잘하는 농민들만 남으면 토양보전, 즉 지력확보 보전이 잘되고 농업이 더욱 효율화, 전문화 되게 되어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도 미국의 농장경영 특징이 가족형태 농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기업 참여의 염려는 없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가격 인상요인

4~5년 전부터 에너지 문제가 가격 상승의



△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USFGC 본부 STOLTE 회장과 그의 인터뷰는 국내 축산언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국산화와 에너지 절약 문제가 연구되고 있어 농업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밭갈이 횟수를 줄이고 기계의 에너지 소요를 줄이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산외에 수송면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 바지 수송 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커서 서해안에 수출하여 해상 수송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입니다. 서해안까지의 내륙수송은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산비 중 에너지 비중이 커져서(기계농업이므로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다) 생산성 향상이 생산비를 얼마나 카바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몇가지 이유로 미국 농업구조 개선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농업은 뿌리가 있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농업에 문제는 있지만 미국의 농업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공급 능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반대로 미

국의 농민도 계속 판매가 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몇가지 보충 질문에 대한 스톨티 회장의 답변이다.

— 한국의 수입 다변화 정책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종류를 다양화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더욱이 국제간의 유대 등을 고려해서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속 필요한 물량과 품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이외에 있겠는가는 의문입니다. 또 다변화해도 옥수수외 수수 외에는 실제 없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다변화가 가능하나 물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비싸집니다. 예로 쏘련이 브라질 등 여러나라에서 수입하다보니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타피오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피오카는 국제시장에서 시장 교란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EC는 곡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만 타피오카는 관세가 없어 실제로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데 품질면에서 균일성과 단백질 함량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곡물의 신용 판매와 금리문제 —

현재 금리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금리의 영향이 큰데 한마디로 불확실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 30~40년간 계속 팽창한 예산을 삭감하여 감세 정책을 쓰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 이 예산축소 정책이 성공했었습니다. 신용판매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P L 480인데 이제 한국은 끝났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고 둘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CCC차관인데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GSM 5 (General Sales manager) 인데 이는 정부 계정으로 조건도 좋지만 한국은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둘째 5~10년간의 중장기 CCC 차관이 있는데 이것은 곡물 판매 대전을 자국 통화로(한국의 경우 원화로) 축산물의 유통, 가공 등 분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중공 같은 전략지역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가 GSM102 인데 이는 미국내 시중은행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도액은 20억 \$로 현재 한국과 폴랜드가 주로 사용하고 그외의 나라는 사용이 없습니다.

— 도입곡물의 고품광이 문제 —

이 문제는 작년에 한국에서 충분히 토의되었고 대부분 이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박부장 보충설명) 고품광이 문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수출, 선적당시의 제품에 대한 검사일 뿐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검사 기준을 없애고, 공급자를 밀고 사는데 검사에 드는 비용등 몇 \$정도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검사제도를 없애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한국 양축가를 위한 특별한 협조 방안 —

과거에는 AID가 있어 이런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생산자와 미국 사료곡물협회(USFGC)가 공동 프로그램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농무성이 이를 관장하고 있는데 USFGC는 1960년부터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ASA(미국 대두협회)등 사무실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와 정부가 50:50으로 돈을 내서 운영합니다.

그간 USFGC는 축산인 및 관련공무원 등을 미국에 초청, 미국 산업 시찰 사업을 계속하였고 미국의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국내세미나 개최 및 양계 산업의 경우 양계 협회와 공동으로 하계 강습회, 닭요리 강습회, 심포지움 개최, 각종 조사 사업 등을 수행해 왔고 현재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기본 경영방침

1. 양축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이로 인하여 발전한다.
2. 원재료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양축가와 더불어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3. 이익은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
4. 공정한 경쟁을 행한다.
5. 중지를 모아 전원경영을 행한다.

세원사료(주) 천안 (2) 8001~5
서울 (713) 2205~6